

## 한국 시민<sup>1)</sup>의 실존양식: 분할과 인간의 위기

김 윤 철\*

### I. 시민은 그 '누구'가 아니다

시민은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시민은 무엇이나는 것이다(난 시민이 누구냐고 묻지 않고, 무엇이나고 묻고 있다).

난 시민은 그 '누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은 인간의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존재형태 혹은 실천적 삶의 양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난 시민은 누구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물음의 답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은 보통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 민주주의적 가치의 법적, 정치적 구성물인 헌법에 의해 주권자, 참정권자로 정의된다. 그리고 위임해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의 담지자로 정의된다. 그런데 난 이러한 정의 역시 '누구'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시민이 어떻게 주권자, 참정권자, 저항자의 위상을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은 어느 누구 하나로 지칭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는 집합적 존재이다. 따라서 굳이 누구라고 지칭해야 한다면 시민은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성되는 '관계적 주체'이다. 시민은 관계적 주체일

---

\* 대안지식연구회

1) 이때 '시민'은 헌법과 각종 법적 장치로서 시민 지위를 갖는 국민을 가리킨다. 이들은 형식적 수준에서만 시민이다. 이들은 이 글이 내리고 있는 시민의 정의(定義)에 부합하지 않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시민이다.

때, 관계맺음을 통해 집합적 주체가 될 때, 주권자, 참정권자, 저항자일 수 있다.

## II. 개인, 자유, 평등에 대한 재조명

통상 시민은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이때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 역사의 과정에서 신과 군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은 바로 그 자유가 구현되는 주체의 단위를 가리킨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 자체로 완결된 주체. 신과 군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에 의거할 때, 난 시민이 주권자, 참정권자, 저항자의 권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념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설정 자체를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이 주권자, 참정권자, 저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개인으로 산개하는 것이 아니라, 즉 원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지향을 갖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관계를 맺은 집합적 주체, 즉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맺을 권리, 즉 시민이 될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협력과 연대라는 관계 맺음을 위한 것이 바로 평등이다. 동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할 때, 협력과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평등이 인간의 협력과 연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무한경쟁’을 가져왔다는 토크빌의 통찰이다.<sup>2)</sup> 이때 평등은 모든 인간이 귀족사회와 같은 신분제적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토크빌은 개인(주의)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지향)라고 본 유럽의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물질적 욕망의 충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기심을 가진 인간의 존재(지향)으로 보았다.<sup>3)</sup> 바로 그 이기심 때문에 평등은 무한경쟁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이익의 다툼과 나눔 속에 단지 적 혹은 동지가 될 뿐이다. 이러한 토크빌의 성찰은 우리가 시민을 논함에 있어 평등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지를 알려

2) 알렉시스 드 토크빌, 임효선·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2』(서울: 한길사, 2010).

3) 강정인, 『자유주의의 이념적 초상』(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준다. 즉 평등을 단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평등, 혹은 법 앞에서의 평등, 경제적 부의 배분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함께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평등이 시민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평등을 그 성격과 형태는 각기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간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혹은 협력과 연대를 가능케 하는- 가치와 역능을 보유한 상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때 짚고 넘어갈 것은 협력과 연대가 가능할려면 동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해야한다는 것이 등가의 가치와 역능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치와 역능은 공통의 지향을 위해 시민이라는 집합적 주체로 만들어낼 때, 서로 조화를 이룰 각자의 고유한 특질-개성-이지, 계량화해서 서로 교환하는 재화가 아닌 것이다.

### Ⅲ. 한국 시민의 실존양식: 분할과 인간의 위기<sup>4)</sup>

앞서 정의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 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해도 소수에 불과하다. 헌법을 포함한 각종 법제들로 시민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이들은 사실상 시민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단지 형식적 수준에서만 시민이다. 이것이 ‘시민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왜 그러한가? 통상적으로 시민이라고 불리워지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거나 강제받은 실존양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분할’, 한국에서 시민이라고 불리워지는 다수 사람들의 실존양식이 바로 분할이다. 이 분할은 실질적으로는 시민이 지 못한 혹은 실질적인 시민이 되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는 인간’의 실존양식이다. 즉 관계 맺음이 불가능한 혹은 봉쇄된, 관계 맺음의 통로가 차단된 인간들의 상태가 바로 분할이다. 재화보유자(재화착취자)와 비보유자(재화피착취자), 처벌자와 피처벌자, 승자와 패자 등으로의 분할.

4) 인간의 위기와 서로 배우는 관계의 맺음에 관련한 부분은 『진보평론』, 2012년 봄호에 실은 김윤철의 “사회의 ‘전환’과 새로운 주체의 ‘발전’에 관한 단상”의 해당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내가 말하는 인간의 위기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 내가 말하는 인간의 위기는 인간성의 파탄이나 도덕성의 상실 운운하며 그것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인간의 위기는 -평생 동안 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롭게 사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무슨 이유이든 간에 주어진 틀에서 탈주를 감행, 자신을 해방시켜볼 줄 아는 '역능을 상실한 인간'을 가리킨다. 네그리와 하트(『제국』, 2001)가 말한 죽음보다는 삶을 숙고하고 생산하는 '혁명적 인본주의자', 즉 '스피노자적 인간'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민은 바로 이러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인간들이 맺는 관계의 소산물이자, 그것을 위해 주권자와 참정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 사회적 존재형태 혹은 실천적 삶의 양식이다.

시민이지 못해 위기에 처한 혹은 시민이지 못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할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재화보유자들은 재화비보유자들을 폭행하고 괘시한다. 단적인 예가 재벌가의 한 사업가가 '매 값'을 주고 운수노동자에게 사적 폭력을 가한 일이다. 노조라는 조직재화를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재화를 갖지 못한 비정규직 노조원을 배척하는 풍토 등.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겪고 있는 인간은 소비 행위에서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예술관에 주목했던 김현<sup>5)</sup>이 진지하게 접근한 바 있는 '가짜 자유'. 그것에 증독된 '쇼퍼 홀릭'의 삶.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 혹은 '금융주도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인간을 재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은 가짜 자유인들을 그야말로 '홀랑 벗겨먹는다'. 명품소비의 대중화는 바로 그런 식의 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1980년대 내구소비재 구매열풍으로 본격화된 한국의 대중소비사회가 결국 도달해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가짜 자유인, 쇼퍼홀릭인 것이다.

소비의 과정에서 그나마 얼마 안되는 재화마저 점차 빼앗겨 결국 '알거지'가

5) 김현, 『현대 비평의 양상』(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되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거저 밥그릇마저 빼앗는’ 식으로 이윤을 증식하는 질서에 포획된 자의 운명이다. 이 질서가 어떤 식으로 관철되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해 임금은 줄여놓고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 소비를 ‘강제’한다. 이를 위해 생필품마저 -견물생심의 발동을 유도하는 공간인- ‘백화점식’으로 설계한 대형마트와 같은 공간에서 구매토록 한다.<sup>6)</sup> 이런 의미에서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무자비한 확산은 단지 골목상권을 빼앗기 위한 것만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 한 푼까지도 내놓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소비의 극한’으로 몰고 가는 전략적 실천이기도 한 것이다.

소비는 단지 명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니 명품의 영역이 무한정 확장되고 있다. 명품아파트, 명품학교, 명품강의, 명품병원 등등. 특히 주목할 현상은 공감과 멘토마케팅 열풍 속에 스스로 혹은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아야 할 위로와 격려마저도 스타 연예인과 성공한 기성세대에게 청해 듣는다는 것이다. 문화자본이 창출한 시장에서 위로와 격려마저도 소비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그런 순간 사람과 사람 간에 신뢰를 쌓아주는 ‘친밀한’ 행위로서의 위로와 격려라는 것 자체가 ‘저어기 머얼리’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일상적 삶으로부터 사실상 ‘분리’된다. 위로와 격려는 이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변인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참 전에 제레미 리프킨<sup>7)</sup>이 ‘자본주의 궁극의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라고 본 ‘문화 자본주의’의 극단적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그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즉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곧 조만간 종료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성원이 도달할 수도 없는 혹은 도달할 필요도 없는 성공, 그것도 정확히 ‘자본의 성공’에만 열광한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 현상은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불어 닳았던 이명박 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성공 신화를 갖고 있는 자에

6) 소비의 관점에서 본 백화점의 근대 공간적 의미에 대해서는 가시마 시게루, 『백화점의 탄생』,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6).

7)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서울: 민음사, 2001).

대한 열망의 분출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때 실패는 더 이상 교훈을 얻는 귀중한 경험이 아니다. '전쟁 같은 경쟁'에서 실패는 곧 죽음을 뜻한다. 이 때문에 실패는 오로지 성공 신호로 이어질 때에만 인정된다.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아무 것도 아닌 자에 대한 괘시와 폭행, 살해는 단지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패배자'에 -혹은 패배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식이 내면화된 것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괘시, 폭행은 패배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지니기까지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역능을 상실한 나약하기 지극한 가엾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퍼니셔(punisher)'가 되어버렸다. 현 자본주의 체제가 성공을 열망하지만, 고작 연명해가는 것이 운명인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부여한 위상과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즉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한 가지 방식이기도 하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은 패배자가 아닌 듯한 느낌마저 갖는다.

때때로 사람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휘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지금의 청년세대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비 마련하느라 등골이 뒹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여행도 '확'하니 다녀오지 못하는 대학생들. 오디션 심사위원들에게 한 없이 '순종적인' 연예인 지망생들.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그마한 일상에서의 탈주도 주저하고, 주어진 규칙과 역할을 착실히 따라야 무엇이 될 수 있다며 끊임없이 평가의 대상에 머무는 이들. 저항과 전복의 주체이기도 한 인간의 사라짐?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터져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재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분할의 경계선을 넘어설 기회가 존재한다는 허구적 감각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 사회의 현실과 달리 '패자부활전'마저 제공한다. 그러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우리가 '승생패사'의 냉혹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꿈을 위해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낸다. 거짓 희망의 유포 '희망고문'에 다름 아니다. 이때 그러한 희망고문이 그 의도와 수법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정치, 경제 영역 -특히 정치 영역- 에서가 아니라, 고도의 편집기술에 바탕한 '감각의 동원'을 주무기로 삼는 문화(산업)·TV와 같은 매스미디어-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주목

해야 한다. 가상의 감각적 경험을 무한정 만들어냄으로써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의 기준을 가장 빠르게 변조해 가장 깊숙이 통제하기 때문이다.

SNS 상 등에서 이루어지는 ‘끼리 끼리 소통’을 통한 편견의 강화. 편견을 강화하는 끼리 끼리 소통. 이미 갖고 있는 ‘가정들(assumptions)’이 무엇인지 그것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토, 즉 ‘성찰’의 부재.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소통의 부패.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을 선협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입증될 수 없고 입증될 필요도 없는- 진영 논리, 그것에 바탕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 사회적 언어의 구사. 결국 관계를 적 혹은 동지로만 한정하는 분할적 질서의 재생산. 협력과 연대를 위한 인정, 양보, 타협 불가능.

한편 사적 폭력,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소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상징되는 허구적인 기회의 제공, 말과 소통의 부패. 이것들은 협력과 연대의 관계 맺음에 기반한 시민의 생성을 가로막고 분할적 존재양식, 즉 인간의 위기를 재생산하는 기제들이다.

#### IV. 시민의 생성을 위하여

인간이 이미 내장하고 있는 자신의 ‘역능’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역능의 찾아냄은 인간들이 ‘서로 배우는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다.

‘서로 주체적 헤게모니에 관한 사색을 펼치고 있는 김학노 교수가 상기시켜주었듯이 ‘모든 사람은 대중이자 지식인’이라며 이미 인간을 역능의 보유자로 보았던 그람시는 그러한 관계의 모형을 ‘모든 교사(지식인)가 곧 학생(대중)이고 모든 학생이 곧 선생이 되는 교육의 원리에서 찾았다. 랑시에르<sup>8)</sup>가 말한 바와 같이 인민(학생)의 지능이 열등하다는 믿음 그 자체가 인민을 바보로 만든다는 것에서 탈피한 교육의 원리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아직도 훈육 및 통제의 기제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양식이다. 물론 이때의 교육은 그람시가 이미 그러했듯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

8)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서울: 궁리, 2008).

전반으로 확장되어진 관계 양식이기도 하다.

서로 배우는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호명’이 일어난다. 서로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역능의 보유자’로서의 인간. 즉 시민이 될 자격을 이미 보유한 존재라는 호명.

그림시는 대중(학생)과 지식인(교사)의 인지방식이 각각 다르다고 하였다. 대중은 ‘느낌(feeling)’을 통해, 지식인은 ‘앎(knowing)’을 통해 인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중이기도하고 지식인이기도 한 인간들은 그러한 배움의 관계를 통해, 느낌과 앎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느낌과 앎과 경험을 얻어 시민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